

二樂堂의 며느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 그 시아버지에게 청원을 했다.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집엘 다녀 오더니 그 며느리에게 말했다.

“내 그 사름에게 되게 욕을 하고 왔노라.”

며느리가 궁금하여 어떻게 되게 욕을 했는지를 물었다.

“어떻게 되게 욕을 험디가?”

“사름이 아니라고 욕을 했지.”

하긴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는 욕은 욕 중에서 큰 욕일 수도 있었다.

(이야기 종합)

오성찬, 『제주의 마을 함덕리』, 도서출판 반석, 1986, p.55.